

손충성(터키 사역자)

이철희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철희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은혜가 된 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교회개혁과 제자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교지는 환경에 따라서 고민하면서 여러 변화를 거쳐가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핍박과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추방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 5년 전부터는 지금까지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간, 민족간, 종교간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여러 나라와 도시로 흩어지면서 난민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고민 가운데 있다. 코로나의 강력한 전염력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나 모임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렸다. 사역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빠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번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관련한 발표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몽골의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그리고 이양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에게 이양해 나가는 몽골 TIM 사역팀의 발표를 들으며 도전과 격려가 되었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나눈 코로나와 이후의 사역 방향은 많은 사역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큰 제목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역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변화된 모습

1. 모이는 교회 -> 흩어지는 교회(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짐)

* 터키부흥교회: 1개 -> 6개의 교회로 나누어짐

설교와 찬양을 음성파일로 예배 지원, 영상으로 성경공부, 인터넷 큐티나눔 등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모임으로 시간 절약과 주중에 여러 번 모임 가능.

그룹의 특징: 지역별, 관계별, 민족별, 연령별로 자연스러운 형성

*이 교회의 이름

코로나 이전; 가정교회, 셀교회

지금; 코로나 교회, 마스크 교회, 소수정예교회

2. 다수를 대상 -> 소수에 집중 - 리더가 세워짐(자연스럽게 리더교육을 받게 됨)

선교지에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적인 경험과 적용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소수의 사람들과 오히려 집중적이고 주중에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이들이 사역자들에게서 받은 양육, 훈련을 주중에 가족, 교회 성도들, 친구나 이웃에게 적용하고 실천해봄으로써 사역자로 훈련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인터넷 줌, 미트 왓츠앱 페이스북을 통한 모임이었다.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천본부에서 실시한 인터넷 교육은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3. 큰 장소 -> 작은 장소로 - 소규모 센터, 집, 카페와 식당 활용이 효율적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렵게 됨으로, 가정이나 방역을 잘 실천하는 공공
장소에서 소수가 모이는 것이 유용하게 되었다.

4. 다양한 형태의 연합

*단체 초월

*콘텐츠 공유; 예배 찬양녹음(10분 3곡정도), 설교녹음(15-18분), 간증녹음파일, 사진공유,

*현지인과 사역자의 연합; 함께 전략적 사역팀이 되어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므로 현지인이 빠르게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온누리교회나 TIM과 사역지 교회들과의 연합; 인터넷을 통한 사역에 집중하면서, 아직은 적지만 예배(특송과 설교)나 특별 프로그램(성경퀴즈대회 등)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관심자들의 증가로 온라인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은 요즘 사람들에게 필수가 되었다. 이 속에서 관심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온라인 전도/온라인 양육이 강화되고 있다.